

광주독립영화제, '500cc 영화 한 잔'으로 초대합니다

6월22~24일 국내 우수 장·단편 34편 상영 개막작 '또 바람이 분다'
작품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광주영화인의 밤' 네트워크 행사도



광주독립영화제는 기존 상업영화와는 달리 자유로운 주제를 모티브로 독립영화를 선보이는 자리다. 광주독립영화의 미래를 개척한다는 계획을 갖고 국내 우수 장·단편 독립 신작들을 소개한다.

12회째를 맞는 광주독립영화제가 올해 주제를 '썸이다: 500cc 영화 한 잔'으로 정하고 다양한 '상차림'을 준비해 눈길을 끈다. 오는 6월 22-24일.

광주독립영화협회(대표 오태승)는 올해 주제를 처럼 광주의 썸머 영화 페스티벌의 장을 토대로 영화 팬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다. 우수 국내 장·단편 영화 34편이 상영되는 올해 영화제에는 광주 출신의 신예 감독의 작품을 비롯해 광주 스태프가 참여한 이색적인 작품을 선보인다.

영화제는 광주광역시, 영화진흥위원회가 후원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개막작은 김태일, 주로미 감독의 작품 '또 바람이 분다'. 5·18민주화운동 다큐멘터리 '오월애'(2010) 등에 이은 '민중의 세계사' 시리즈 네 번째 작품이다. 가족 전원이 참여한 제작사 상구네 시리즈이며 지나는 10년의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영화다.

'또 바람이 분다'는 캄보디아, 보스니아, 팔레스타인 등 분쟁지역만 골라 다닌 한 가족의 여정을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22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바 있다.

'메이드 인 광주 단편 신작선' 섹션은 올해엔 단편영화 위주로 3가지 섹션에 걸쳐 상영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섹션은 '5월 광주 신작 공모전'을 거쳐 12편이 엄선했다. '치얼스(Cheers!)', '화창한 여름', '이력', '수상한 교실', '소나기 리메이크', '사라지는 것들', '스승의 은혜', '팬텀', '메멘토 모리', '7시 내 고향', '지각', '여름 위로'를 만날 수 있다.

작품들은 광주 출신으로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펼쳐 온 감독들 신작과 더불어 초등 교사와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비롯해 고교생 감독의 작품, 그리고 광주의 신예 감독들의 첫 작품들을 볼 수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눈여겨 볼만한 섹션이 많



'또 바람이 분다'

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인 김조광수 감독의 영화 '신입사원 : 더무비'가 상영되는 '장편 초청 2'와 광주 북포리에서 즐기는 야외 상영 '한 여름 밤의 로맨스 단편 초청 2'가 그것.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여름밤의 오싹함을 더해줄 '핑키 호러 나이트 단편 초청 4' 섹션도 기대를 모은다.

독립영화제 관계자는 "이번 섹션들을 통해 광주의 여성 관객은 물론 MZ 세대들에게 독립영화는 재미없다는 편견을 날려주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며 "새로운 면모도 과감한 도전 정신으로 섹션을 편성한 만큼 많은 분들의 관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너를 줘다'

폐막작으로는 영화 '육장' (2020)으로 이름을 알린 심혜정 감독의 신작 '너를 줘다'. 사랑에 빠진 당한 지수의 이상한 취미를 모티브로 영화는 시작된다. 지수는 타인의 쓰레기를 보면 상대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깔끔하게 버린 쓰레기가 눈에 띈다. 그녀는 옆집 남자 우재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진다.

영화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CGV 상, 한국경쟁 왓차 주목한 장편을 수상했으며 걸그룹 레인보우의 김재경이 주인공 지수 역을 맡아 열연했다.

이번 영화제 기간 중에는 작품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된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광주 영화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화계를 새롭게 모색하는 네트워크 행사 '광주 영화인의 밤'의 자리도 마련된다.

한편 독립영화제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는 퀘벡 내셔널데이를 맞아 퀘벡을 대표하는 감독인 장 마크 발레의 'C.R.A.Z.Y.'를 상영하는 등 광주의 썸머 영화 페스티벌에 부합하는 다양하면서도 작품성 있는 영화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하나에서 열의 초상으로' 기획전 전시 장면.

<산수짜리 제공>

매해 돌아오는 오월 '하나에서 열의 초상으로'

6월 4일까지 대안공간 '산수짜리'
김한라·서혜민 기획 남석우 등 참여

"오월은 고정불변한 역사이고, 그렇기에 매해 돌아오는 오월은 단지 달력 속 한 장의 오월이 될 순 없는 일이다."

광주극장 골목에 자리한 대안공간 '산수짜리'에서 5월 기획전을 열고 있는 김한라, 서혜민 씨의 말이다.

'하나에서 열의 초상으로'라는 주제로 진행중인 이번 전시는 청년들의 회화, 영상, 설치 작품 등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장에서는 참여 작가들의 지난날 초상이기도한 기존 작품과 오월의 광주를 담고 선 한 사람으로 작품을 재해석한 글을 만날 수 있다. 6월 4일까지이며 관람시간은 수요일부터 일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특히 관객은 오월의 광주를 맞이한 자신의 초상

을 자유롭게 드로잉해 직접 부착할 수 있다. 관객의 참여로 '오월의 초상'의 군집이라는 기획의도가 완성된다.

이번 기획전은 산수짜리의 김한라 서혜민이 기획했으며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남석우, 서혜민, 윤태준, 임수범, 임인자, 정덕용, 정한결 작가가 참여한다.

대안공간 산수짜리는 당초 산수동에서 활동했을 당시 '산수살이'의 의미를 담은 소리나는 말을 따지었으며 현재는 광주극장 골목으로 이전했다.

김한라, 서혜민씨는 "오월을 반복하는 것이 불가피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반복을 행할지 질문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며 "출신지와 거주지를 불문하고 광주는 모두에게 도달해 있고, 광주를 담고 선 현재의 초상들과 목소리를 듣고자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는 산수짜리와 뜻을 함께한 작가들이 마련했으며, 관객 후원 장구와 작품 판매를 진행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피아니스트 김혜진·명지민 듀오 콘서트

6월 5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더웨이 앙상블 단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젊은 두 피아니스트 김혜진, 명지민 첫 번째 듀오 콘서트가 오는 6월 5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첫 번째 음악회인 만큼 다양한 작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전반부에는 드라마 필화를 통해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 작곡가 슈베르트의 '네 손을 위한 피아노 환상곡 작품번호 940', 프랑스 작곡가 라벨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라 발스'를 연주한다.

후반부에는 러시아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호두까기 인형', 미국 작곡가 볼콕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에덴의 동산' 그리고 아르헨티나 작곡가 피아졸라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리베르 탱고'를 연주한다. 폭넓은 음악대가 특징인 피아노 한 대 앞에 두 피아니스트가 나란히 앉아 선보이는 연주를 통해 슈베르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두 대의 피아노로 마주 보며 펼쳐는



김혜진

명지민

무대에서 피아노 배틀을 연출해볼 수 있다. 피아니스트 김혜진은 광주대 음악학과와 독일 데트몰트 국립음대를 졸업했다. 현재 한국피아노학회, 클라비노바, 피아노모, 그리고 더웨이 앙상블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명지민은 광주대 음악학과와 독일 뮌스터 국립음대에서 마스터과정을 졸업했다. 더웨이 앙상블 리더이자 한독클래식음악협회 전라지부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전석 초대. /이보람 기자 boram@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성 목사 47명 안수... 교단헌법 개정 영향

여의도순복음교회는 25일 여성 목사 47명을 포함해 49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교회가 속한 교단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에서 여성 목사가 이처럼 여러 명 배출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강한 한국 교회에서 이처럼 다수의 여성 목사를 한 교회에서 세우기는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목사가 다수 배출된 것은 기하성의 교단 헌법 개정이 영향을 미쳤다.

기존에는 여성의 경우 전도사로 15년 이상 활동한 후 교회의 허락을 얻어야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근년에 이를 10년으로 줄였고, 이번 달 열린 총회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교단 헌법을 재개정했다.

남성의 경우 목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전도사 활동 기간이 3년이다. /연합뉴스

전남도립미술관 '시의 정원' 연계 작가와 대화

26일 안유리 작가·김민정 시인 '시와 전시의 관계성'

전남도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시의 정원: Poetic Paradise'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기념해 전남의 시와 소설, 동시대 현대미술의 만남을 연계한 전시이다. 안유리, 이매리, 임흥순, 리밍웨이 총 네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관람객과 영감을 공유하기 위해 아티스트 토크를 펼쳐 호응을 받았다.

지금까지 세 번의 토크가 진행됐으며 이번에는 마지막 토크로 안유리(사진) 작가의 아티스트 토크가 26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초대 손님은 시인이자 난타 출판사 대표 김민정.

난타 출판사 대표 김민정은 고정희 시인의 시집 '아름다운 사람하나'를 복간했으며 1999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으로 데뷔했다. 시집으로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등이 있으며 박인환 문학상, 현대시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지난 2022년 리움 아트스펙트럼 선정 작가인 안유리는 언어와 이야기들에 관심이 있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스틱스 심포니'는 2채널 영상작품으로 해남 출신 시인 고정희의 시를 포함해 '구리하라 사다코' 등 여성 시인 시가 포함돼 있다.

이번 작가와의 대화에서 안유리 작가와 김민정 시인은 시와 전시의 관계성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외도 전남도립미술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안유리 작가의 작품세계와 출판작 외에도 김민정의 현대미술에 대한 생각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 정원"을 주제로 한 전시에도 많은 분들이 관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뤌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